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온라인
대중경제
온라인
대한민국

2020년 5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 과 장 이정삼(044-201-2211), 서기관 박은영(2215) / 제공일: 5월 26일(총 9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산물 도매유통도 “비대면(Untact) 시대”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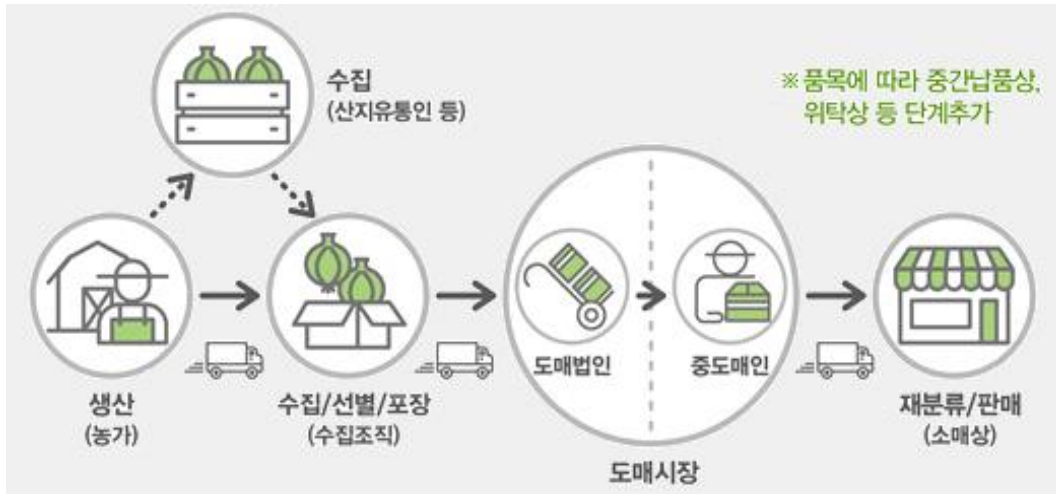
- 5.27(수) 부터 ‘온라인농산물거래소(B2B 중심)’ 시범 운영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와 농협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여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가격 급등락 완화 기대
-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생산자와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B2B 거래 가능
 - 품질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의 APC 등이 출하자로 참여하며, 전국 공판장 중도매인 및 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연합 등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할 예정
 -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체결된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 우선 5.27(수)에 양파를 시작으로 7월 이후 마늘을 추가하여 온라인 거래를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 이를 토대로 향후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 구조를 유지해왔다.
-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 기존 유통단계(도매시장 경유) >



<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유통단계 >



-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 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

* 양파 시범거래의 경우, 취급물량·품질 경쟁력 상위 15개 내외 산지농협 및 법인

○ (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업체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드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

○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newgp.nonghyup.com>

○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상품 상세페이지 및 배송정보 확인 (구매자용)>

The screenshot displays the product details page for onions. The main table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출하번호	893	출하처명	서남부채소농협	진행상태	대기
매매방법	입찰	출하관역	수도권		
품목(종)	양파(양파(일반))	생산년도	2020	원산지	전남 무안군
등급	특(상)	크기	M	포장	그물망
단위중량	20.0kg	파렛트당 수량	50개 적재	최소거래단위	3 파렛트 (150개)
브랜드	드래곤	친환경인증	일반농산물	GAP인증코드	

Below the table, there are four images of onions with a '클릭' (Click) button. To the right, a large image of an onion is shown. Below the onion image, there is a '배송이력' (Shipping History) table:

구분	수령인명	성명	연락처	주소
1	주수	1811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연락처	주소
2	주수	39430 강원도 원주시	연락처	주소

At the bottom, there is a summary section with the following details:

입찰수량	5	파렛트	250개	입찰단가(개당)	41000 원	총 입찰금액	10250000원
배송장소							
도매인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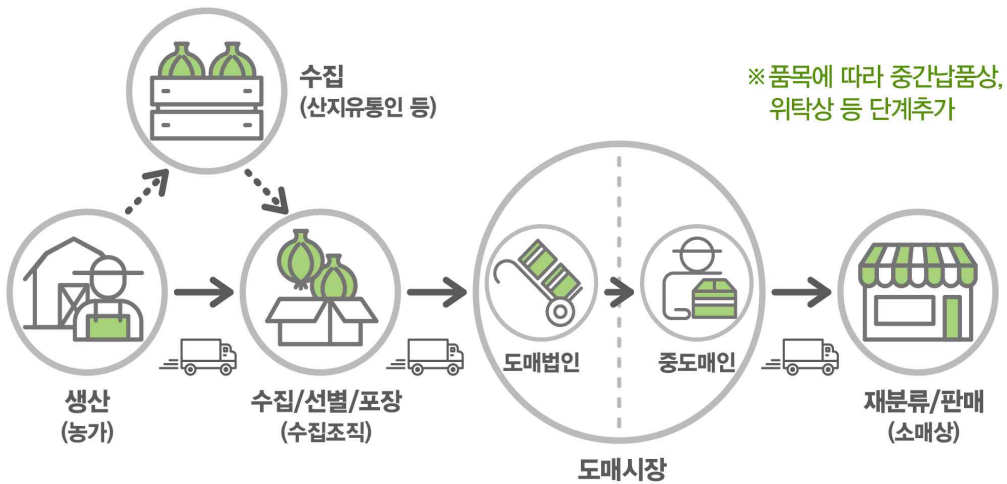
Buttons for '배송' (Shipping) and '배송확인' (Check Shipping) are visible at the bottom right.

- 또한, 출하차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품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참고 1

기존 유통경로 대비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인포그래픽

기존 유통단계 Before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유통단계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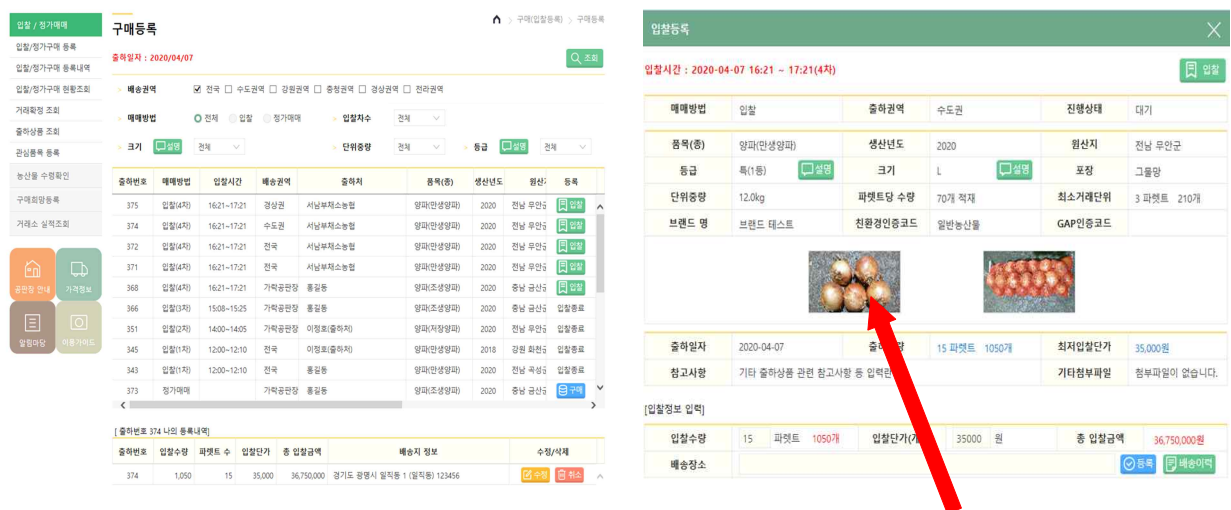


온라인농산물거래소 화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 메인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및 배송정보 확인 (구매자용)>



※ 구매 희망 크기·중량·산지 등 원하는
상품 조회

사진 클릭 후 원본사진(고화질) 확인
*최소 2MB 이상 ~ 10MB 이하

참고 3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양파 시범사업 개요

- (거래기간) '20.5.27(거래 개시일) ~ '20.12월, 주말 제외 매일 개장
- (공급자) 대외경쟁력을 갖춘 산지농협 및 법인 15여개 내외
 - * 전남서남부, 무안농협, 무안조공법인, 함양농협, 북신안농협, 거금도농협, 울곡농협, 남부안농협, 서산부석농협, 합천유통(주), 신미네유통사업단 등
- '20년 거래목표물량 : 1.5만톤 이상
- (수요자) 전국 공판장 중도매인(2,200명) 및 하나로유통 등 자회사(5개), 지역중소슈퍼체인(KOSA 등), 식자재업체, 전처리업체 등 대량 수요처
- (거래방식) 파레트단위(최소출하단위)로 입찰방식(최고가 낙찰)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사전 협의가격)을 병행하여 거래

입찰 거래	출하등록 (출하처)	입찰등록 (구매자)	낙찰자결정 (시스템)	↘ ↗	배송 (출하처)	수령·검수 (구매자)	거래확정 (시스템)	정산 (거래소)
정가 거래	출하희망등록 (출하처)	구매등록 (구매자)	거래체결 (시스템)					

- (거래시간) 입찰거래는 2~3회/일(1회차 9~10AM, 2회차 2~3PM, 3회차 7~8PM),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거래 가능
 - * 입찰종료 즉시 잔여 물량은 정가매매 재출하 등록되도록 설정하여 당일거래 종료시(24시)까지 거래 가능
- (거래수수료) 상장수수료를 3%, 장려금(출하·판매)은 미지급
 - * 일반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4~7%
- (대금정산) 판매대금 당일정산(거래소→출하처)으로 대금결제 안정성 보장
 - * 현행 일반업체와의 B2B 거래시 거래후 15~30일 이후 대금결제
- (배송)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기존거래업체 활용)
 - * 배송은 D+1일을 원칙으로 하되, 오후 낙찰분은 D+2일까지 배송
- (인센티브) 매매참가인 거래 약정시 외상거래한도 우대, 신용보증보험료* 지원, 대금결제 자금 이자 지원** 등
 - * 외상거래한도 설정(무보증, 1~5천만원) 시 필요한 서울신용보증 이행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 ** 출하자에게 구매대금 선지급(온라인거래소) 후 구매자가 실제 대금을 결제할 때 해당 기간 무이자